

# 일본북해도의 1년동안 목장 연수를 마치려...

〈전북 김제 계현목장〉

조 현

제대를 앞두고 너무도 벅찬 행운이 찾아왔다. 1년동안의 일본에서의 목장연수가 그것이다. 집이 목장을 하기에 선택했던 전북 이리 농공전문대 축산과를, 제대하고 복학준비를 하려던 내게 찾아온 행운은 아버지의 노력이었다. 막상 연수에 들어가고부터의 힘들었던 일과 외로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매일 적어가는 일기장속에는 “난 한국인이다”라는 글귀가 마지막에 쓰여졌다. 1년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한국농축개량협회 윤여창 부회장님으로부터 제의가 있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을 몇글자 적어본다.

길기만 했던 군생활, 막상 제대를 할 무렵 생각지도 못한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부터 되었다.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들었을때는 너무도 당황한 느낌이었는데 그것은 해외연수에 대한 말씀이었다. 일본에서의 1년 목장연수, 대학을 졸업하고 목장경영을 할 생각이던 내게 뜻밖의 좋은 기회가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찾아오는 걱정, 언어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의 생활등등이었지만 이 모든 고민들을 해결하게 된 것이 윤여창 부회장님과의 만남이었다.

실제 내가 일본연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분이기도 하지만 내앞에 3명의 선배들이 연수를 마치게 해주셨고 내가 4번째 4기였다.

1기 경상북도 경주출신의 양신철씨 지금은

한국중축개량협회에 근무하시고 있고,

2기 경기 양주의 김성원씨, 3기 대전의 박수범씨이며

4기 전북 김제의 조현이다.

모두가 각기 다른 지역인 것은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윤여창 부회장님의 뜻있는 계획이다.

일본의 낙농기술을 익히고 더욱더 발전시켜 우리나라 각지방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싶어하시는 계획이셨던 것이다. 낙농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진낙농기술을 터득해 우리나라 낙농의 수준을 높이기위한 연수였다. 1년간 연수하면서 글과 말을 할정도의 수준만 된다면 일본에서 대학진학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도 하셨다. 아직 격지못한 일본에서의 생활이지만 1년간의 목장연수후에 예전의 나를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좋은 기회라 여기고 연수의 길에 올랐다.

모든 절차를 거쳐 97년 1월 15일 출국일자가 잡혔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모든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기내에서 윤여창부회장님의 사모님께서 일본의 생활과 습관등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일본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처음 반겨준 사람은 호소다씨였다. 작은 키에 아무진 인상을 받았는데 내가 지내게될 목장의 주인이셨다. 자동차로 달리면서 부회장님과 호소다씨와의 대화가 오고갔지만 귀에 들어오는 말은 없고, 창밖에 보이는 눈이 도시를 하얗게 하고 있었다.

약40분정도 지났을까 내가 1년동안 지내게

될 호소다(細田)목장에 도착되었다. 그곳에는 모두 4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중에는 일본 생활이 1년이 다되가는 3기 박수범씨가 계셨다. 암흑속의 한줄기 빛과 같은 안도감을 주는 느낌이었고 그외에 아주머니와 두명의 일본인 실습생이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



식사를 하는동안 긴장한 탓인지 말한마디 못하고 있었는데 박수범씨는 유창하게 웃어가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부럽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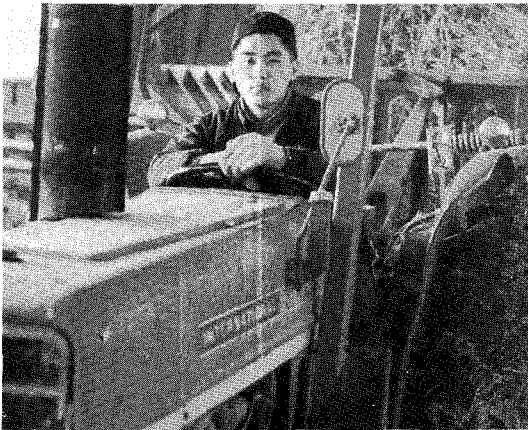
그 다음날은 일본 낙농교류협회와 낙농학원 대학의 중요한 분들을 만났지만 듣는 것만으로 만족해야했다. 그래도 모두들 열심히 하라는 격려를 해주시는듯 했다.

## 본격적인 연수

새벽 5시면 시작되는 아침 착유때문에 늦게 까지 공부한 몸을 일으키려면 보통 힘든일이 아

니었다. 약1주일동안은 부족한 잠탓에 졸면서 착유를 했었는데 파트너인 65살 마찌무라라는 할아버지께 받는 눈총도 매우 따까웠다.

7시 30분정도에 아침일을 마치면, 식사로 준비된 빵을 먹고, 9시 30분에 오전 일과 12시에는 점심식사, 1시 30분부터 오후 일과와 저녁 착유 7시 30분정도면 하루일이 끝난다 하지만 난 아직 남은 공부때문에 잠에 드는 시간은 대충 12시에서 새벽 1시사이였다.



9월에 25만평의 사료포에서 옥수수 엔실리지를 하지만 이틀이면 마무리까지 끝이 나는데 6가구가 상부상조해서 하며, 이는 기계화된 덕인 것 같았다.

겨울은 5개월이상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밖에 일은 거의 없고, 육성우에 급여할 사료와 엔실리지를 준비하고 그밖에 기계정비 및 청소를 하는 정도이다.

이러한 생활속에서 본 한국과 일본북해도의 낙농차이는 단지 넓은 땅과 기계화된 생활 그것이 달랐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사육하는 방법은

여기에서는 오전, 오후 일과가 계절에 따라 바뀌었는데 밭의 작업은 4월달부터였다. 눈이 녹기시작하면 밭의 퇴비, 비료 깔기로 부터 쟁기질, 노타리, 옥수수 파종등이고, 5월부터 수확하는 목초일의 경우에는 오전일과 부터 저녁 착유전까지 줄곧 밭에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밭이 70만평 정도이기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밭일을 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었다.



똑같지 않은가 한다.

단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군관리에 철저하고 홀스타인의 혈통보존과 개량, 또한 소 한마리 한마리에 쏟는 정성에 놀랐다는 것이다. 그런 노력으로 몇십년이 지난 지금의 호소다 목장의 소들은 북해도 아니 전일본에서도 알려져 있다.

일본사람은 받은대로 더 되돌려주려 한다는 말이 있다.

22살이던 미야다라는 일본인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간지 1주일정도 지났을까. 그 친구의

생일인 것을 알게되어 내고향에서 하는 식으로 초코파이 22개에 성냥개비를 꽂고 생일축하노래를 불러주었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아 서툴게 하는 말에 행동으로 축하해줘서인지 감동했던 모양이다. 22년동안 처음으로 생일축하를 받았다고 했다. 그만큼 일본인의 생활에는 “정”이라는게 없는 것 같았다.

이 친구의 도움으로 나는 1달보름만에 일본어에 말문이 트였고 물가가 비싸서 사지 못했던 가을, 겨울옷을 준비할 수 있었고 뒤에 나오는 여행때에도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2틀동안 관광지를 안내해 주었다.

미야다는 전문대 졸업반이던 97년 1월달에 목장에 들어왔는데 목장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없이 겪게되어서인지 무척 힘들어했는데 결국 3월말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영원히 잊지 못할 고마운 친구이었다.

## 일본에서 만난 두분의 어머니

작은키에 호리호리한 몸 목장일을 하기에는 힘이 불일듯한 아주머니였다. 사람이 부족한 탓에 송아지의 분유와 청소를 맡아 하시고 목장 식구도 많아 식사준비에 설것이까지 일이 상당히 많으셨다.

집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무엇이든 돕고 싶어서 설것도 도와드리고 휴일이면 같이 요리도 만들었다. 함께 있는 시간에 많은 대화도 할 수 있었고 아들이 없어서인지 나를 자신의 아들처럼 잘 대해주셔서 더욱 고마움을 느꼈다.

9월중순경 한국중축개량협회에서 20인정도 견학을 북해도로 오셨는데 그중에는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도 오셨었다.

1주일동안 북해도의 유명한 목장 견학과 북해도 홀스타인품평회를 볼 목적이었으며 짜여진 일정때문에 이들과 있을 시간은 2일이 고작이었다.

집에서 오실때 밥반찬과 여러가지 준비해오신 음식을 손수 만들어 주셨고 매운 음식맛에 땀까지 흘려가며 평소의 두배를 더 먹는 느낌이었다.

목장사람들이 깜짝 놀랄정도였으니까,

저녁늦게까지 목초작업과 밤에 배우던 맛사지때문에 어머니와 대화도 얼마하지 못했는데 피곤해서 곤이 주무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을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쩡해왔다. 매일 일에 시달려서 야윈얼굴, 하나 둘 늘어가는 얼굴의 주름살과 흰머리카락이 아직 50살도 안되신분의 외모로는 볼 수 없기에 더욱 마음이 아팠다.

## 태어나 처음 흘린 피눈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았다. 몇번의 실수, 내가 보살펴야할 가축들, 일본인과의 신경전,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힘겨운 내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었다. 어느날 주인아저씨가 짜증을 내며 야단을 하셨다.

나의 실수였는지 아닌지도 몰랐으며 사소한 문제 같았지만 그때는 왜그리도 서러웠는지 기계운전을 하면서 계속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

다. 생각같아선 크게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눈물방울만 똑똑 떨어질 뿐이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자는 울때에도 가끔씩 거울을 본다는데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 않는지 본다고 했고, 남자는 맘속 깊은 곳에서 꼭 참다가 터진 피눈물이라는 것을

아마 해외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일주일간의 일본여행

약 11개월정도 지났을까 북해도국제농업 교류협회에서 1주일간의 여행을 허락해 주었다. 그동안 목장에서 알게된 친구들 짝게는 5일 길게는 2달동안 함께 지냈던 친구들집을 방문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다. 친구들도 만날 기대감도 컸지만 더욱더 기대되는 것은 늦은 아침까지 잘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야했던 11개월동안 나의 제일 큰 바람이 이루어지는 기회였다.

북해도와 다른 환경의 목장 3곳과 앞에도 애기했던 미야다를 만나러갔다. 도중에 들린 목장들은 좁은 목초지에서 두번에 걸쳐 풀씨앗을 뿌려 4번 수확을 하고, 도중에는 옥수수를 심어서 1년 먹일 것을 준비했고, 육성우 착유소를 포함해 50마리정도의 규모였는데 세곳 모두 품평회에 매년 자기가 가꾸어 만든 좋은 소들을 출품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착유소도 능력이 좋은 소들이 많았다.

마지막에 미야다와의 재회, 9개월만에 만났

지만 예전과 변함없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바쁜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2일동안 휴가를 내서 나를 관광지와 유명하다는 한국음식점에 안내 주었다.

일주일동안의 여행으로 많은 것을 볼수도 있었지만 말도 하지도 못했던 내가 혼자 전 일본 여행을 했다는 것과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성취감에 너무도 기쁘고 고마웠다.

1년이라는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하루가 끝나고 일주일, 한달, 1년 눈깜짝할 사이였지만 그안에서 홀스타인이라는 젓소에 대한 지식도 늘었고, 매일 같이 있다보니 소들의 생리와 습성들, 소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과 치료방법, 예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아직 남은 학교생활 아침 저녁으로 착유를 해가며 받는 용돈과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학비와 생활비는 걱정없고, 남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목장에서 직접 체험해서 내것으로 만드는 일만이 남아있다.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외국어때문에 다른 환경속에서의 적응등 많은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국에 계시는 가족들과 앞으로 계획된 나의 꿈과,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

또한 그동안 보살펴주신 호소다가족과 윤여창부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중축개량협회의 여러분들 덕분에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더욱더 나를 키울 수 있었던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